

아카시 나무 개화로 본 서울 도심 열섬현상, 매우심각!

금년도 서울 도심인 어린이 대공원의 아카시나무 꽃은 위도 상 3° 정도 차이를 보이는 해남 땅끝마을 보다 3일이 빠른 5월 10일에 피었다.

이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생태유전연구팀이 2006년부터 매년 아카시나무 개화시기를 지표(indicator)로 98개의 고정조사구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로 연도에 따라 정도의 차이(2006년: 1일 늦음, 2007년: 같은 날 개화, 2008년: 3일 빠름)는 있으나 일관되게 빨리 피고 있어 서울의 도심 열섬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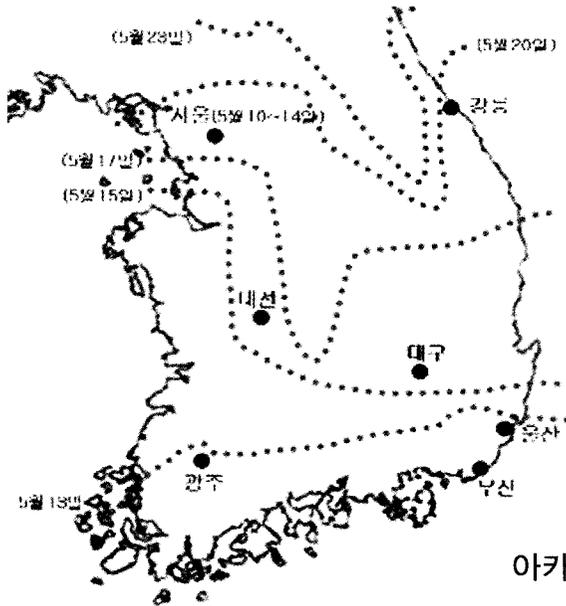
또한 전국에서 가장 개화가 빠른 지역은

경남 밀양(북위 35° 30')으로 지난해(5월 4일)에 이어 금년에도 5월 5일 꽃이 만개하였으며 남해, 진주(5월8~9일)가 그 뒤를 이었는데, 내륙 최남단 땅끝마을(북위 34° 17')보다 8일정도 빨랐다.

금년개화시기의 특이성은 시기에 따른 기후의 변덕성이다.

즉, 벚나무, 진달래 등 3~4월에 꽃이 피는 식물은 예년에 비하여 개화가 빨랐으나 아카시나무는 2~3일정도 늦었다.

이는 아카시나무 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월~4월의 온도가 전년에 비해 각각 1.3℃와 1.4℃ 낮아졌기 때문이다.



아카시나무 개화 등고선(2009)

특히, 금년 4월초의 초여름 같은 날씨와 중순부터 지속된 저온의 장기화 등 불규칙한 날씨 탓으로 여겨진다.

서울의 아카시 나무 꽃 피는 시기는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 강변북로 등 도심지역은 외곽지역(북악산, 정릉)에 비해 6~9일 정도 개화가 빨랐다.

즉, 같은 서울 내에서도 녹지면적이 낮은 어린이대공원, 우장산공원 등은 넓은 녹지를 보유한 남산, 홍릉수목원 등에 비해 열섬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도시 공원이나 숲과 같은 녹지공간은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시킬수 있을 뿐 아니라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·저장하는 탄소 흡수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과 지구 온난화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해법이라고 밝혔다. **양봉**

〈산림환경신문〉